

“기업과 상생 위한 협업 활동에 최선을”

전북농협, 우수식품가공업체 방문 소통행보 지속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도내 지역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소통행보에 앞장서고 있다.

김장근 본부장은 임실군에 위치한 식품가공업체인 (주)한한식품(대표 정승관)을 방문, 업체 기술력과 다양한 육가공 제품을 시연하고 거래기업의 애로사항과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한한식품(대표 정승관)은 소시지 및 육가공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열린 2019독일IFA 식육·육가공 박람회 등에서 아시아 단일업체로는 최초·

최고인 17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50년 치즈역사를 자랑하는 임실의 특색을 살린 임실치즈소시지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임실매실소시지, 임실치즈고추장 플레이쉬 소시지 등 다양한 육가공 제품을 선보이며 세계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김장근 본부장은 “우수 기술력을 갖춘 지역기업의 성장은 전북도 전체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이다”며, “잠재적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협업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김장근 본부장이 최근 임실군에 위치한 식품가공업체인 (주)한한식품을 방문, 애로사항과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중기청, 청소년 비즈쿨 지원협의회 진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청소년 비즈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7일 전북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19년 제1차 청소년 비즈쿨 지원협의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전라북도교육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메이커스페이스, 창업선도대학 등 청소년 유관기관 및 창업지원기관에 처음 마련되는 자리로, 청소년 비즈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사업 지원을 위해 첫 삽을 뜨는 회의나 만큼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정기회의 개최시기 결정 및 기관 역할정립 등 협의회 운영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2019년 중기부 청소년 비즈쿨 사업 운영방안 발표 ▲주요 비즈쿨 운영학교 및 창업선도대학의 하반기 사업 운영계획 공유 ▲프로그램 협업 및 홍보사항 전달도 이뤄졌다.

김광재 청장은 “회의를 통해 청소년 기업이 정신 함양을 위한 구심점이 마련됐다”며, “기관 협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창업정신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 사업은 청소년에게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모의창업 교육 등으로 도전정신·진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02년부터 지속된 사업으로 매년 초, 중, 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선정하여 교육, 멘토링, 체험프로그램 제공 및 국내의 캠프 개최로 창업정신을 고취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롯데백 전주점 사물대 봉사단이 27일 송천정보통신학교를 찾아 '사랑과 정성의 자장면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따뜻한 관심으로 건강한 사회 만들어요”

롯데백 전주점, 송천 정보통신학교서 사랑나눔 봉사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조환섭) 사물대 봉사단원 17여명은 27일 덕진구 송천동 소재 송천정보통신학교(교장 오연호)를 찾아 '사랑과 정성의 자장면 나눔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봉사활동은 전북도지사 표창을 받은 조리장(풀무원 푸드앤컬처 점장 김귀동)이 미리 준비한 신선한 재료(교장 오연호)를 찾아 '사랑과 정성의 자장면 나눔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공했다. 롯데백화점 조환섭 점장은 “청소년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함께 어우러져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고창선운산농협 - 영선고, 농업인재 양성 위한 상호교류 협력 협약식 개최

고창 선운산농협(조합장 김기욱)이 27일 영선고등학교(교장 정민영)과 상호 우호 협력을 바탕으로 농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우수 농업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발전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 교류 및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선운산농협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영선고 정민영 교장, 이문식 농협 고창군지부장, 선운산농협 김기욱 조합장, 장봉남 상임이사 및 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영선고등학교와 선운산농협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수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 현장 교육과 실습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교육과정 및 컨설팅, 창업금융 등 우수 농업인재 육성과 농업, 농촌의 지속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은행, 내달부터 전국 94개 영업점 무더위쉼터 운영

K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94개 영업점의 고객 상담실과 객장을 무더위쉼터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은행 영업점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지리 잡고 있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무더위쉼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운영되는 무더위쉼터는 고객들이 은행 업무를 보지 않더라도 영업점을 방문하여,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시원한 생수와 공간이 제공된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무더위 쉼터 운영을 통해 여름철 폭염에 지친 고객들이 무더위를 피해 잠시나마 시원함을 누리길 바라며, 전북은행은 고객들의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 무더위쉼터는 영업점 운영시간이며, 8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임금협약 체결식 가져

이스타항공은 최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과 2019 임금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이스타항공 최종구 대표이사와 신영근 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종사의 임금 인상 및 각종 수당제도 개선 등을 주요로 하는 임금협약에 합의하는 서명식을 가졌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부터 임금협상을 이어오며 5차례에 걸쳐 노사 간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해 7-8월 항공 이용률이 증가하는 성수기 시즌 전 단기간 내 합의를 도출해냈다.

특히, 올해 유튜브 상송 등 비용부담과 수요 둔화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경영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의지와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무분규 타결을 이뤄냈다.

이스타항공 최종구 대표이사는 “상생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준 노동조합에 감사하다”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노사간 이해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만큼 경영진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영근 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임금교섭으로 상생하는 노사문화의 발단이 마련된 만큼 안전운행에 힘쓰며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이 지난 27일 대한주택관리와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은행 - 대한주택관리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K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27일 대한주택관리(주)와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대한주택관리(주) 임직원(아파트관리소 직원)을 대상으로 대출, 신용관리 서비스 등 포괄적금융을 실천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교육장소 제공을 비롯해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전북은행 따뜻한금융클리닉센터는 건전한 부채관리 서비스를 제공, 고금리 대출은 은행권 신용대출로 전환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신용등급 상승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추진한다.

대한주택관리(주) 김종철 대표는 “협약을 통해 아파트관리소 직원들의 금융지원이 확대 될 것이라며, 전북은행과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북은행은 따뜻한금융을 실천하는 지역 대표은행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주)는 1992년 설립하여 공동주택, 상가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온 도내 중견 기업이다.

/김영태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